

여수시, 관광객 늘어 좋긴한데...코로나 어쩌나

광복절 연휴 21만명 등 8월 휴가철 91만명 여수 찾아 시 "코로나 지역 확산 움직임...방역 강화·모임 자제"

“관광객 발걸음 많아져 좋긴한데 코로나 확산 어쩌나.” 전남 대표 해양관광도시 여수시가 코로나19의 급속 확산에 방역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5~17일 광복절 연휴에 관광객 21만명이 여수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휴 첫날인 15일 9만2000명을 시작으로 16일 7만5000명, 17일 4만2000명 등 총 21만명이 방문했다. 휴가철인 8월에만 91만명이 여수를 찾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9만명이 찾았던 것에 비하면 27% 줄어든 수치다. 장마가 늦게 끝난 탓에 앞으로 이달 말까지 20만명이 더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여수시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여수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주요 관광 시설에 발열 체크기와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주요 관광시설 30곳과 호텔 등 숙박시설 20곳 등 70여곳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와 발열 확인 등을 점검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역과 터미널 등 공용시설에서 발열 체크를 강화하고 있다. 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전자출입명부 의무 시설을 중점 관리하는 한편, 시에서 운영하는 시티투어 등 대면 관광프로그램에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 17일 오동도와 엑스포역, 만성리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며 방역 체계를 점검했다. 권 시장은 “코로나는 고위험시설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식당·카페·주점·시장 등 어디서든 노출될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며 “마스크 쓰기과 거리 두기,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다수가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권오봉 여수시장이 지난 17일 오동도에서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고흥 호동·운곡마을 '설화 특화마을' 조성

9억 들여 역사·문화관광 자원 설화 융합

고흥군이 전해오는 옛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테마가 있는 설화 특화 마을을 조성한다. 19일 고흥군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의창지역 공모사업에 '이야기 천국 창조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9억원을 지원받는다. 고흥군은 분청문화박물관 등 기존 역사·문화관광 자원에 설화를 융합한 새로운 관광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중 설화 특화 마을 조성은 3년 연차사업으로 고흥읍 호동리 호동마을과 두원면 운대리 운곡마을을 일원에서 진행 중이다. 전해내려오는 마을 설화를 기반으로 스토리텔링을 더한 관광자원을 조성해 '특색 있는 마을'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호동마을은 조선시대 문인학자이자 야담문학의 시원인 '어우야담'을 집필한 류몽인(柳夢寅)이 2년간 거주하면서 감로정(甘露亭)을 지어 생활했던 곳으로 끝갯바위, 정, 도깨비 이야기 등 옛이야기들 전해오는 마을이다. 운곡마을은 주변에 청자 가마터 5기와 분청사기 가마터 27기가 분포돼 한국 도자기 발달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곳이다. 분청문화박물관 주변에 위치해 고흥의 역사·문화, 문학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사구시, 수도암 등이 설화를 간직하고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여수시·상의 "플랜트건설노조 조속히 파업 끝내야"

파업 장기화 조짐 지역산업 위기 직면...노사 양측에 원만한 합의 촉구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의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여수시와 여수상공회의소 등 관계에서 조속한 노사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상공회의소는 19일 성명을 내고 "플랜트건설 노사는 원만하고 조속한 마무리를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매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수상의는 "코로나19의 장궤로 세계 경기의 경

색국면이 장기화하고, 원유 공급 과잉 등이 더해지면서 석유화학업종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지역의 산업 자체가 전례 없었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쟁의 활동을 지양하고, 조속히 노사 간 협상 테이블에서 원만한 합의안 도출에 전념하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여수상의는 이어 "수 조원을 투입해 내년 가동을

시작하는 여수산단 내 신규 공장의 경우 투자 효과와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가 가시화할 중요한 시기"라며 "노사 양측은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대승적 목적과 양보·타협의 정신으로 하루속히 임금교섭을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권오봉 여수시장도 최근 노사 대표를 만나는 등 중재에 나섰다. 권 시장은 "국가산단에는 GS칼텍스, LG화학 등 17개 기업이 2025년까지 9조5천억원의 대규모 투

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효과가 지역경제 제로 확산하는 데는 산업평화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노사가 서로 배려와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으로 협상에 임해 일터와 가정, 시민들의 일상에 행복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는 지난 12일 여수시청에서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을 선언한 뒤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다른 석유화학산단보다 여수산단 건설 현장의 급여 수준이 낮다며 6월부터 여수산단 건설업협회와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국토정보공사 교육기부

여수공고에 라이선스 프로그램 기증



한국국토정보공사(LX) 여수지사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교육기부 활동에 나섰다. LX 여수지사는 최근 여수공업고등학교(교장 전용석)에 50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3억5000만 원 상당의 현장 지적측량용 전산장비인 '라이선스 50copy 프로그램'을 기증했다. <사진> 여수지사의 교육장비 기부에 따라 여수공고 학생들은 지적 산업에서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 실무 능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여수지사는 또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와 진로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여수지사는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정하는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권 LX 광주전남본부장은 "미래 주역인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 체험과 수준 높은 실무능력 향상을 통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순천만잡월드' 상표 등록

순천 해룡면에 지상 2층~지하 1층 건립...내년 5월 개관 예정

순천시는 호남권 직업체험센터인 '순천만잡월드'의 브랜드 로고(사진)와 그래픽 모티브에 대한 상표를 출원해 등록을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상표등록은 지식재산권 확보와 안정된 상표 사용을 통한 홍보마케팅 기반을 조성하고 무단사용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순천시는 앞으로 10년간 순천만잡월드 상표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됐으며, 등록된 상표를 활용한 이미지 홍보 및 관련 상품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잡월드에 대한 통일된 이미지를 전달해 홍보효과를 높일 것"이라며 "내년 개관을 앞둔 순천만잡월드가 호남권의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꿈을 찾고 키워가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호남권 직업체험센터인 '순천만잡월드'는 경기 성남의 한국잡월드와 이어 두 번째다. 순천시 해룡면 일원에 국비 240억원, 지방비 245억원 등 총 사업비 485억원을 투입해 지상 2층~지하 1층, 연면적 8007㎡ 규모로 건립 중이다. 오는 12월 완공 예정이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5월에 정식 개관한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잡월드 조감도

영 기간을 거쳐 내년 5월에 정식 개관한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hi 휴인(주) 문의상담 **062) 945-0036~7**

모던 스타일

클래식 스타일

지중해 스타일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